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4년 2월 18일

사순절 첫째 주일
세계 교회력 「나」해 12주

3) 따라서 변모 사건에 묘사된 세 가지 현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사실이나 아니냐, 신문 기자가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이나 아니냐, 하는 논란은 성경 읽기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아킴 그닐카(J. Gnllka)는 <마가복음 주석>에서 예수 변모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역사적인 재구성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예수를 따라서 그 길을 간다는 각오에서 찾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함께 전승시킨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경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는 민중을 흑세무민에 떨어지게 하는 종교 열광주의자거나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던 반로마 혁명 선동가로 보일 뿐입니다.

4)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나름으로 화려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고 싶으신지,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가 새롭게 변화될 그 부활 생명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맞고 싶으신지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다고 해서 죽음을 허무하게 맞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이 가르쳐준 삶의 방식을 진리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전통은 예수에게서 오직 한번 종말론적 생명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르침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믿지 않습니다. 누가 옳을까요? 이 문제도 역사가 끝나봐야, 또는 죽어야 드러나겠지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길을 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온갖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난 이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5) 오늘 본문 중간에 베드로가 나서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 셋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구름도 걷히고, 엘리야와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도 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변화산에 계속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야 할 변화산 아래에는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로 인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6) 오늘 우리의 실존도 똑같습니다. 산 위에는 빛으로 변화한 예수가 있고, 엘리야와 모세가 있습니다. 산 아래에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온갖 속제가 놓여 있습니다. 더 궁극적으로 산 위와 아래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생명의 신비와 능력은 간질을 앓는 산 아래의 현실 안에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게 느껴지는지요. 그런 느낌과 경험이 없으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말장난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 목사 부부는 경산시 남산면 반곡지에 지난 2월13일 오후 잠시 다녀왔다. 반곡지(盤谷池)는 옛 지명 반곡리(里)에 있는 못이라는 뜻이다. 들레길이 잘 닦여 있었다. 천천히 걸어도 15분이면 충분하다. 티브이 드라마나 영화 촬영 장소로도 이름을 날린 곳이다. 봄이 오면 복숭아꽃이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제방에는 십여 그루의 수백 년 된 왕버들 나무가 세월의 흔적을 몸에 새긴 채 버티고 있다. 늦겨울 햇살이 봄 햇살 같았던 날!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친교 5시-5시20분/예배 후 모임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o/churchs>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시편 9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우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여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니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찬송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온 세상의 참되고 유일한 주인이시며, 마지막 때 고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완성하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온 영혼을 기울여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써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본질로 갖고 계셨지만, 사람의 고난과 시험과 무능력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절망의 끝자락인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 겪는 이들과 연대하겠으며,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 선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찬송 「국악찬송」 4장 (영광 누리소서) 이은영 곡 ... 다 함께

Cmaj7 Eb Cm/Eb Gm/D Cm Fm Bb Eb Eb/D#
 만 왕 의 - 왕 우 리 구 주 태 초 부 터 영 - 원 까 지
 B Bb Bb7 Eb Fm Ab Eb
 영 광 영 광 누 리 소 서 - 아 - - 멘

[알 리 는 말 씀]

- * 예배 후에 오늘의 설교를 주제로 공부모임이 있습니다.
- * 다음주 (25일)는 정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서울샘터교회와 다샘교회는 협동목사님들께서 각각 준비하신 설교를 하십니다.
- * 지난주일(2월 4일, 11일) 헌금: 1,135,000원
 - 주일헌금 275,000원 통장헌금 860,000원
 - . 교회 온라인 통장: 국민은행 659002-04-033967 양혜선

* 2024년 2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
2월25일	김동호 목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윤혜정 <시청각실>
3월 3일	정용섭 목사	최선아 집사/ 김용성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이기령 <시청각실>

지난주일(2월11일) 설교 발췌

제목: 예수의 변모 사건 (막 9:2-9)

1)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막 9:7) 예수께서 세례받을 때도 비슷한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막 1:11) 구름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할 때 고대 유대인들은 구름이 뻑뻑하고 번개와 천둥이 치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소리에 대한 경험은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어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대나무 숲이 곳곳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죽림에서 특별한 소리가 울립니다. 단순히 바람이 스치는 소리이기도 하나 ‘나는 살아있습니다. 바람과 사랑을 나누는 중입니다.’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는 제자들의 강렬한 경험이 바로 구름 속에서 소리가 울리는 것으로 표현된 겁니다

2)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고 예수의 변모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말이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성경의 깊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홍해가 실제로 갈라졌다고 주장해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그런 일들이 경험된 겁니다. 하나님 경험이 먼저 있었기에 노아 홍수 이야기가 귀에 들리고, 갈라진 홍해가 눈에 보인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린아이를 사랑하기에 그 아이가 천사로 경험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172장 (사망을 이긴 주) 1, 2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찬송(주기도) ... 다 함께 (* 악보 별지 참조)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 찬송 172장 (사망을 이긴 주) 3, 4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죄의 고백 ... 다 함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대항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떠나서 주님이 주신 복된 선물들을 외면하면서 주님의 사랑까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께 죄를 범했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자비의 기도 ... 다 함께

목사: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시 145:9) 자비를 구합니다.

회중: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래의 찬송가를 부른다.)

간절하게 이강민

주 - 여 자 비 를 베 풀 어 주소 서 그리스도여 자 비 를
베 풀 어 주소 서 주 - - - 여 자 - 비 - 를 베 풀 어 주소 서

*사죄 선포

목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거룩 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상투스) ... 다 함께

거룩 하 - 시 다 거룩 하 - 시 다 거룩 하 시 도 - 다
만 군 의 주 하 - 나 님 하 늘 과 땅 - 에 가 - 득 한 그 영 광
높 은 데 에 호 - 산 - - - 나 주 의 이 름 으 로 오 시 는 이 - 여
찬 양 받 으 소 - 서 높 은 데 에 호 - 산 - - - 나

*평화 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No Room H.M. Day

1. 오 예수님 내 맘에 오 - 소 서 기쁘게 맞으리 - 이
 2. 오 예수님 문밖에 기다리네 왜 아니모시나 - 네
 3. 오 주님이 간곡히 권하시네 네 마음 문 열라 - 너

O Lord, in my heart there's a welcome for Thee. Gladly I now would say, - Come

죄인의 마음과 생활 속에 오 소 서 내 주 여
 맘문을 단단히 잠가두고 왜 아니모시나
 위해 죽은 나를 박대 말고 네 마음 문 열라

in, blessed Saviour, my heart and my life Hence forth would own Thy sway.

주님을 문밖에 세워 뒀던 더러운 내 맘을 - 주
 Long hast Thou wait- ed and long knocked in vain Outside my heart's closed door; Oh,

예수님 오셔 사하시길 이함 - 게 하소서 -
 cleanse me from sin, then, dear. Lord, enter in And- dwell there for- e- ver more. -

말씀예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말씀의 능력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산만하게 하는 세상의 낮두리는 물러가고, 생명 충만하게 하는 말씀만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말씀 창세기 9:8-17 ... 윤혜정 집사

성서교독 시편 25:1-10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고개들듯 내영혼을 주님향해 드웁니다 내영혼을 드높이여 주님만을 바랍니다
-저는오직 주님만을 마음다해 믿습니다 교만하게 구는자들 부끄럽게 만드소서
 당신만을 바라는자 안전하게 지키시고 주님에게 등돌린자 부끄럽게 하옵소서
-주님만은 우리에게겐 기쁨찬양 주옵시고 교만하게 구는자들 깊은한숨 주옵소서
 먼저우리 알아야할 주님의길 가르치사 우리모두 그길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직그길 따르리니 진리의길 주옵소서 구원의주 당신만을 종일토록 기다리네
 주님주신 그자비와 그사랑을 생각하니 그것만이 영원하고 우릴구원 할것일세
-어릴적에 제가지은 죄악기억 마음시키고 당신사랑 선함따라 저를살펴 주옵소서
 주님께선 선하시고 올곧으신 분이오니 죄인에게 바른길을 가르치어 주시리라
-크고크다 주님주신 사랑의길 진리의길 그분언약 지키는자 이사실을 밝히알리

둘째 말씀 베드로전서 3:18-22 ... 윤혜정 집사

*셋째 말씀 마가복음 1:9-15 ... 윤혜정 집사

*응답 찬송 644장 (아멘) ... 다 함께

J. Stainer, 1870

아 멘 아 멘 아 멘 아 멘
 아 멘 송

설교 예수승천과 하나님 우편 ... 박재진 목사

설교 후 기도 ... 설교자

찬송 167장 (즐겁도다 이 날) 1, 2절 ... 다 함께